

정동영 민주당화당 대표 인터뷰

“호남 교섭단체 구성, 4기 개혁정부 창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화당 내부에서 '자강론'과 '제3지대론'이 충돌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강론은 내부 결집을 우선하며 정치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3지대론은 외부 세력과의 합당이나 통합 등을 통해 정계개편을 주도하며 총선 구도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두 주장 모두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생존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일보는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동영 민주당화당 대표를 만나 당내 상황과 내년 총선 전망 등을 들어봤다.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 여부로,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다. 당이 큰 우산이 되지 못하는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안철수 전 대표의 배신 이후, 평화당은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생존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문재인 태풍' 속에서도 평화당은 호남에서 5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냈다. 하지만 그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다. 여기에 민주당의 '오만병'은 다시 도지고 있다. 호남 민심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문지마' 지지를 절대 보낼지 않을 것이다. 냉정한 전략적 선택에 나설 것이다.

-구체적 승리의 근거는.

▲조기에 민주당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경쟁력을 만들어 나간다면 승산이 있다. 또 바른미래당과의 합당이나 통합 등을 통해 기호 3번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평화당 후보 모두 범개혁 세력이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은 고심할 것이다. 여기에 '경쟁 대 독점' 구도를 부각시킬 것이다. 평화당이 바로 서야 민주당이 호남에 공을 들인다는 평범한 논리다. 호남은 이미 국민의당을 통한 경쟁의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결국 인물론이 내년 총선 호남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내년 총선 목표와 전략은

▲호남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다. 호남에서 15명 전후의 지역구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연립정부 참여는 물론 민주당과의 4기 개혁정부 창출도 추진하겠다. 친문 진영 독자적으로 4기 개혁정부 창출은 어렵다. 호남교섭단체를 구성, 호남의 정체성과 이익을 대변하고 4기 개혁정부 창출에 나서겠다는 공약은 호남 민심의 지지는 견인할 것이다.

-제3지대론에 대한 입장은

▲실체가 없지 않으나, 서두를 필요 없다. 바른미래당의 분열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의 지지율을 거론하며 무소속이 낫다는 말도 한다는데 패배주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계개편 어떻게 보나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이며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입·복당도 시간문제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호남 의원들은 속을 찡찡 심정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한 국당에서는 유승민·안철수를 통해 중도를 확보, 내년 총선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개혁 진영이 정진 차려야 한다



내년 총선 호남서 민주와 '일대일 구도' 댄 승산

호남 민심 전략적 선택...인물론 최대 변수

실체 없는 제3지대론 서두를 필요 없어

수도권서 민주당과 정치적 협상력 커질 듯

다.

-수도권 등의 전략은

▲수도권 후보 발굴 TF를 구성했다.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서도 전국적인 후보 발굴은 필수적이다.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5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구가 최소 15곳은 된다. 평화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1500표는 받는다. 민주당과의 정치적 협상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지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평화당은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호남 정치 세력이다. 평화당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이는 호남 정치 세력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호남이 민주당의 주도세력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결방살이 하는 것보다 평화당이 호남 교섭단체로서 민주당과 함께 4기 개혁정부를 창출하겠다. 경쟁은 언제나 독점보다 낫다. 평화당에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드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신규아파트 '뺏다방' 불법거래 꼼짝마!

합동단속반 편성 집중단속...홍보활동도

광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거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잇따라 개소함에 따라 일명 '뺏다방' 등 외부 세력의 투기조장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지도 단속위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최근 개소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I PARK)와 어등산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대상으로 매일 현지에서 '뺏다방' 등 의심 행위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분양사무소 방문객 등 시민들이

투기 조장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자치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어등산 한양수자인 분양사무소에서 '뺏다방' 등 외부세력 활동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들은 분양사무소와 인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선호 층 매수를 조건으로 연락처 요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 의심자를 집중 확인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중이다.

광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최소 6개월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과파는 행위는 불법전매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점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분양계획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명 '뺏다방'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거래행위 근절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들도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다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제안받거나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거주사를 밝히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 불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양성평등을 일상으로, 행복한 전남도 2019년 전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2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운데)와 이용재 도의회 의장, 조영애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양성평등을 일상으로, 행복한 전라남도' 뜻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가 모집

참여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청년창업기업 자금 지원도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정부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발굴·제공 사업이다.

추가모집 대상은 총 4개 사업으로 광주시 2개 사업과 북구와 광산구 각각 1개 사업이다. 청년 34명, 예비창업자 49명, 산단(하남, 진곡) 및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자 45명을 모집

한다. 모집 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과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가지다.

지역정착지원형은 대표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2400만원의 연간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사업화 등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 사업 주제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유통 먹는샘물 수질 '안전' 29개 제품 50개 항목 모두 적합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생수) 수질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먹는샘물 수질검사는 2019 세계수생선 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지역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 29개 제품을 수거해 진행했다.

수입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 유허중금속, 농약, 유기화합물 등 법정 50개 항목으로 모두 먹는샘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먹는샘물은 안전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샘물을 먹기 적합하게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